



## 월명(月明)의 향가(鄉歌) 이편(二篇)에 대(對)하여

A Study on Two Hyang-ga Poems Written by Wol-myong

---

저자  
(Authors) 금기창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90](#), 1983.12, 129-157 (29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90](#), 1983.12, 129-157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3302>

APA Style 금기창 (1983). 월명(月明)의 향가(鄉歌) 이편(二篇)에 대(對)하여. 국어국문학, 90, 129-15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02 11:4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月明의 鄉歌 二篇에 對하여

琴 基 昌\*

- |                 |                  |
|-----------------|------------------|
| I. 緒 言          | III. 「祭亡妹歌」에 對하여 |
| II. 「兜率歌」에 對하여  | 1. 「祭亡妹歌」說話의 分析  |
| 1. 「兜率歌」說話의 分析  | 2. 「祭亡妹歌」의 構造    |
| 2. 「兜率歌」의 構造    | 3. 「祭亡妹歌」의 解讀·解釋 |
| 3. 「兜率歌」의 解讀·解釋 | IV. 結論           |

## I. 緒 言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月明의 鄉歌作品인 「兜率歌」와 「祭亡妹歌」는 小倉進平博士가 「鄉歌及び吏讀の研究」란 著書에서 解讀作業을 始作한 以來,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多角度로 解讀·解釋이 式圖되어 그동안 많은 業績들이 蓄積되어 왔다. 月明의 鄉歌 二篇은 月明의 佛敎的 宇宙觀을 歌詞로 옮겨 놓은 格調 높은 作品들이다.

「兜率歌」를 彌勒이 자리잡고 있는 兜率天에 關하여 노래의 形式을 빌려서 꾸며 놓은 祝文이라고 한다면, 「祭亡妹歌」는 對句表現의 技法을 驅使하여 이루어진 名詩이며 佛敎的 宇宙觀인 生死一如의 立場에서 누이 同生의 죽음을 서러워한 哀悼詞요 노래로 된 祭文이라고 하겠다.

「三國遺事」에 收錄되어 있는 鄉歌資料는 그것이 鄉歌說話 또는 鄉歌傳說이라 할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 그런 故로, 鄉歌說話 속에 끼어 있는 鄉歌는 그 속에 담겨 있는 思想이 靈異傳說·神異說話의 中心思想으로서 傳說 說話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기에 本稿에서는 먼저 鄉歌說話를 分析 歸納하고 鄉歌의 解讀·解釋에

\* 翰林大 古典文學專攻.

있어서 闖入하는지도 모르는 昏迷와 獨斷을 抑制하려 한다.

筆者는 이미 拙稿 「非詞腦形 鄉歌에 對하여」<sup>1)</sup>에서 「兜率歌」의 構造를 論하였고 「嗟辭詞腦의 歷史的 變遷에 對하여」<sup>2)</sup>에서 「祭亡妹歌」의 構造問題를 論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筆者는 非詞腦形 鄉歌와 嗟辭詞腦를 各各 單純한 言語形式의 한 構造로 보고 그들의 形式의 分析을 通하여 얻어진 結果, 卽 一句二名の 構造와 三句六名の 構造를 지니고 있는 特殊한 形式으로 지어진 作品이라고 把握한 바 있었다. 따라서, 非詞腦形 鄉歌인 「兜率歌」와 嗟辭詞腦格의 作品인 「悼亡妹歌」(祭亡妹歌)는 各各 一句二名の 構造와 三句六名の 構造를 基調로 하여 거기에 살(肉)을 붙이고 옷을 입히어 아름답게 丹粧을 해 놓은 作品들이라고 보아진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稿에서는 「兜率歌」와 「祭亡妹歌」의 解讀·解釋을 試圖하면서 그 文學的인 意味를 把握하고 藝術的인 價値를 밝혀 보려고 한다.

## II. 「兜率歌」에 對하여

「三國遺事」에 끼어 있는 鄉歌는 靈異와 神異를 證示하기 위한 資料로서 傳說·說話 속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三國遺事」에 收錄되어 있는 鄉歌資料는 그 自體의 不透明性 때문에 鄉歌의 研究는 그 出發點에서부터 커다란 難關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兜率歌」의 解讀·解釋에 있어서 資料의 不透明으로 起因된 昏迷와 獨斷을 抑制하기 위하여 「兜率歌」說話의 分析을 歸納하고 「兜率歌」의 構造를 考察한 다음, 「兜率歌」의 解讀·解釋에 關한 諸家의 異見들을 問題解決의 鍵잡이로 삼고 「兜率歌」의 解讀·解釋을 試圖해 보기로 한다.

1) 琴基昌; 「非詞腦形 鄉歌에 對하여」 『語文學』 第41輯 (1981), pp. 1~14.

2) 琴基昌; 「嗟辭詞腦의 歷史的 變遷에 對하여」 『語文學』 第38輯(1979), pp. 1~33.

1. 「兜率歌」說話의 分析

「兜率歌」가 실려 있는 「三國遺事 卷五 感通第七 月明師兜率歌」<sup>3)</sup>條의 「兜率歌」說話는 아래와 같이 分段될 것이다.

- (1)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 (2) 二日並現 挾旬不滅.
- (3) 日官奏請緣僧 作散花功德則可禳.
- (4) 於是深壇於朝元殿 駕幸青陽樓 望緣僧 時有月明師 行于阡陌時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啓.
- (5) 明奏云「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開聲梵」王曰「旣卜緣僧 雖用鄉歌可也。」明乃作兜率歌賦之 其詞曰

「今日此矣散花唱良 巴寶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解曰「龍樓此日散花歌  
挑送青雲一片花  
殷重直心之所使  
遠遊兜率大僊家」

- (6) 今俗謂此爲散花歌 誤矣 宜云兜率歌 別有散花歌 文多不載.
- (7) 旣而日佐即滅.
- (8) 王嘉之 賜品茶一甕 水精念珠百八箇 忽有一童子 儀形鮮潔 跪奉茶珠 從殿西小門而出 明謂是內宮之使 王謂師之從者 及玄微而俱非 王甚異之 使人追之 童入內院塔中而隱 茶珠在南壁畫慈氏像前.
- (9) 知明之至德與至誠 能昭假于至聖也如此. 朝野莫不聞知 王益敬之 更贈絹一百疋 以表鴻誠.

이 「兜率歌」說話는 (1), (6), (9)의 歷史的 事實과 (2), (7)의 靈異·神異의 事象 (3), (8)의 靈異的 解義 (4), (5)의 「兜率歌」發生傳說로 構成되어 있다.

(1), (2), (3), (4), (5)는 月明이 헤아릴 수 없는 靈異力·神通力을 지녔던 歷史的 背景에다가 하나의 詩歌傳說을 添付시킨 部分이다 하

3) 崔南聲; 『三國遺事』 卷五, 月明師兜率歌, p. 222.

졌다.

「兜率歌」歌詞中の 彌勒座主는 兜率天의 彌勒을 뜻하는 語辭로서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에 의하면, 兜率天의 彌勒菩薩은 七寶圓臺의 摩尼殿 師子床座 蓮華上에 結跏趺坐하고 있고 몸은 閻浮檀金色이며 머리 위에는 天冠을 쓰고 있다고 한다.

(6)은 歷史的 事實의 報告이고 一然의 生存當時 이 「兜率歌」가 「散花歌」로 불리어 오고 있었음을 一然是 證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散花歌」와 「兜率歌」는 別個의 노래로서 「散花歌」의 歌詞가 너무 길기 때문에 「月明師兜率歌」條에 실리지 아니하였다고 一然是 叙述하고 있다. (7)은 月明의 至極한 德과 精誠이 부처님에게 感動되어 부처님의 힘을 빌려 月明이 日怪를 사라지게 한 靈異的 事象을 들어 月明이 헤아릴 수 없는 靈異力·神通力을 지녔던 人物로 解義하고 있다. (8)은 新羅文化의 絕頂期였던 景德王代의 治世가 豊樂安穩하고 怨賊 兵火 飢饉 같은 災難이 없는 理想社會이었음을 一然是 彌勒童子의 出現이라는 靈異의인 事象을 들어 「彌勒下生經」의 立場에서 象徴的으로 說話하고 있다.

「彌勒下生經」에 의하면 「釋迦牟尼佛」을 「釋迦文佛」彌勒을 「慈氏」라고 呼稱하고 있다. 彌勒에 對한 「慈氏」의 稱呼는 「彌勒下生經」에 特有한 呼稱이며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이나 「彌勒大成佛經」等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忽有一童子 儀形鮮潔 脆奉茶珠 從殿西小門而出」의 「忽然히 나타난 儀容이 新鮮하고 깨끗한 한 童子」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筆者는 下生한 半伽像信仰의 對象인 彌勒童子이었다고 생각한다.

彌勒下生信仰에 의하면 彌勒이 下生하는 國土는 豊樂安穩하고 人民은 熾盛한 理想社會라고 한다. 新羅 사람들은 이 理想社會의 實現을 彌勒의 下生信仰과 連結시켜 생각하고 있었다. 新羅에 있어서는 彌勒下生信仰은 國家佛敎의 한 形態로 볼 수 있으며 社會的 國家的인 連帶를 갖는 信仰이었다.

新羅는 三國統一을 이룩한 後 諸般 制度施設의 整備, 經濟生活의 安定, 唐과의 頻繁한 交流 등으로 因하여 마침내 新羅의 國運은 黃金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中에도 가장 絕頂期는 이른바 新羅 「中代」

에 當하는 聖德—孝成—景德의 三代 64年間으로 이 時期는 唐에 있어서도 盛唐(中唐)에 當하는 때로 唐의 文化가 隆盛의 極에 達했던 때였으며 唐의 文物이 崑崙·남해로 新羅에 流入되고 있었던 時期였다.

景德王(西紀 742~765)은 新羅史上 律令體制의 確立과 文化의 興隆에 가장 힘쓴 國王이라 하겠다. 行政面에 있어서는 이 王代에 새로 設置된 수 많은 官職名 郡縣名 및 增員과 改名된 官職 州縣名은 「新羅本紀」에 記載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이 밖에도 官職과 州縣의 變革이 大幅的으로 行하여졌다는 事實은 「地理志」·「職官志」에 詳細히 記錄되어 있는 바와 같다.

文化面에 있어서는 神文王 2年(西紀 682)에 設置된 國學을 大學監이라 고치는 同時에 諸業博士 助教를 두어(西紀 743) 儒學을 研究케 하고 僧眞表에 의해서 法相宗의 布教에 힘썼으며 金大城에 의해서 佛國寺와 石窟庵이 築造되었다는 것은 刮目할 만한 事實이라 하겠다.<sup>4)</sup>

이와 같이 景德王은 나라를 다스리기 24年 行政面에서나 文化面에 있어서 神通力을 지녔던 人物로 보아진다.

一然은 景德王代를 豊樂安穩하고 人民熾盛한 理想社會로서 評價하고 景德王治下의 新羅國土가 怨賊 兵火 飢饉 같은 災難이 없는 理想國家이었음을 下生한 彌勒으로써 象徵的으로 說話하고 있는 것이다.

(9)의 「月明의 至極한 德과 精誠이 能히 至聖에게 感動되었음이 이와 같음을 알게 되니, 朝野에서 그 事實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句節은 實在人物인 月明의 傳記의 記錄인 것으로 把握된다.

筆者는 위에서 普及한 鄙見의 根據를 좀더 明確히 하기 위하여 「兜率歌」 歌話資料의 새로운 模索 檢討의 길을 進行시켜 나아가기로 하겠다.

彌勒信仰에는 彌勒이 있는 兜率天에 上生하기를 願하는 上生信仰과 兜率天에서 人間世界에 下生하여 오는 彌勒과 만나기를 願하는 下生信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上生信仰을 說戒한 經典에는 西紀 455年 宋의 沮渠京聲에 의해서 漢譯된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이 있고 下生信仰을 說戒한 經典에

4) 琴基昌; 「忠談의 鄉歌 二篇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第87號(1982), pp. 187~188.

는 西紀 402年 後秦의 鳩摩羅什이 漢譯한 「彌勒大成佛經」과 이 經典을 抄出한 「彌勒下生成佛經」이 있다.

「兜率歌」說話와 密接한 關係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三國時代의 彌勒信仰을 考察함에 있어서 看過할 수 없는 重要한 經典으로 생각되는 「彌勒下生經」은 西晉의 竺法護에 의해서 漢譯된 것이 아니라 前秦時代에 漢譯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에 彌勒信仰의 根據가 되고 있는 이들 經典의 內容을 一瞥하여 보기로 하겠다.

먼저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에 보면,<sup>5)</sup>

「어느날 釋迦世尊이 舍衛國의 祇樹給孤獨園에서 弟子들을 앞에 놓고 陀羅尼를 說敎하였다. 弟子들 가운데에는 彌勒菩薩도 있었는데 弟子의 優波離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일찌기 世尊께서는 彌勒이 道를 깨달아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彌勒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出家하지 아니하였고 禪定을 닦지 아니하였으며 煩惱도 끊지 아니하였습니다. 彌勒은 死後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입니까”라고 世尊께 물었다.]

世尊은 優波離에게 告하여 말씀하시되,

「彌勒은 지금으로부터 12年을 지나서 終命하고 반드시 兜率天에 往生할 것이다. 兜率天에는 五百萬億의 天之主 即 天子가 있어 一生補處의 菩薩을 供養한다. 彌勒은 僅僅 一生을 繫縛된 뿐으로 다음 世上에는 나(佛)의 뒤를 補完할 使命을 띤 菩薩이다. 即 第二의 釋迦라 하겠다. 兜率天에는 光明이 빛나 있고 光明가운데의 蓮華는 化하여 七寶之樹가 된다. 500億의 天女가 나타나 微妙한 音樂이 흐르고 있다. 萬若 兜率天에 上生하는 者가 있으면, 女妙 莊嚴한 芬圍氣에 싸여 天女의 侍御를 받는다.…」

라고 말하고 다시 말을 이어

「彌勒은 일찌기 波羅捺國의 却波利村 波婆利大波羅門家에 태어났으나 12年後의 2月 15日에 結跏趺坐하여 入滅할 것이다. 그 몸은 紫金色으로 빛나고 兜率天에 가면 鑄金像과 같이 動搖하지 않는다. 未久에 七寶門臺의 摩尼

5) 田村圓澄; 『古代朝鮮佛敎と日本佛敎』(1980), pp. 78~79.

殿 師子床座에 化生하여 蓮華上에 結跏趺坐한다. 몸은 閻浮檀金色이며 머리 위에 天冠을 쓰고 晝夜 六時에 說法을 繼續한다. 이와 같이하여 56億萬年이 지나던, 彌勒은 兜率天에서 閻浮提, 卽 人間世界에 下生한다.

兜率天에의 上生을 바라는 者는 彌勒의 像을 造立하고 彌勒의 이름을 불러 終命이 되었을 때 彌勒은 眉間의 白毫에서 빛을 내며 諸天子와 더불어 曼陀羅華를 비(雨)같이 뿌리면서 來迎하여 이 사람은 瞬息間에 兜率天에 上生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以上에 있어 본 바와 같이 煩惱를 끊지 아니하여도 兜率天에 上生할 수 있다고 하는 點은 彌勒信仰이 出家者를 爲한 信仰이 아니라 在家者를 對象으로 하고 있는 信仰임을 窺知할 수가 있겠다.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은 在家者에 對해서 天上界에 上生할 수 있는 길을 연 經典이라 하겠다.

「彌勒大成佛經」은 釋迦世尊이 摩伽陀國 波沙山上에서 弟子의 舍利弗과 大衆을 앞에 놓고 說敎하는 形式을 取하고 있다.

그 內容은 兜率天의 彌勒菩薩이 人間世界에 下生하여 修行을 쌓아 彌勒佛이 되는 것, 또 龍華樹下에서 三會의 說法을 行하여 釋迦世尊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을 救濟하는 것 등이 말씀되어 있다. 彌勒이 下生하는 나라는 豐樂安穩하고 人民은 熾盛한 理想國土라고 한다. 大婆羅門의 修梵摩를 父로 하고 같은 波羅門의 女 梵摩拔提를 母로 하여 태어난 彌勒이 世間의 衆生이 苦惱하는 것을 보고 出家學道하여 正覺을 이루어 부처(佛)가 되는 過程은 젊었을 때의 釋迦 卽 悉達太子의 生涯와 恰似하다 하겠다.

「彌勒下生經」은 釋迦世尊이 舍衛國의 祇樹給孤獨園에서 500人의 比丘衆을 앞에 놓고 阿難의 問에 答하는 形式으로 展開되어 있다.

久遠의 將來에 彌勒이 出現하지만 그 國土는 豐饒 安穩하고 土地는 豐熟 人民은 熾盛한 理想的 社會라고 한다. 趨頭末城의 大臣의 아들로서 태어난 彌勒은 在家한지 얼마 아니되어 出家學道하고 龍華樹下에서 無上道果를 이루어 부처(佛)가 된다. 그리고 龍華樹下의 三會의 說法에 의하여 衆生을 救濟한다고 한다.

이 「彌勒下生經」에서 注目되는 것은 釋迦牟尼佛을 「釋迦文佛」, 彌勒

을 「慈氏」라고 呼稱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彌勒에 對한 慈氏의 呼稱은 西紀 701年 唐의 義淨이 漢譯한 「彌勒下生成佛經」에서도 볼 수 있지만, 前述한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과 「彌勒大成佛經」에는 보이지 않는다.

以上에 있어 본 바와 같이 下生信仰은 다시 龍華의 三會에 結緣을 願하는 彌勒佛信仰과 半跏思惟像을 對象으로 하는 彌勒菩薩信仰의 두 가지가 있다 하겠다.

龍華의 三會에서 結緣하는 것을 願하는 彌勒佛信仰은 龍華의 三會에서 만나는 일에 意義가 있는데 對해 半跏像의 彌勒菩薩信仰은 彌勒의 下生 그 自體에 意義가 있는 것이다.

前者는 龍華의 三會에 關與하는 個人的 問題를 還元되지만, 後者는 下生하는 彌勒을 待望하는 國土와 그 國土의 人民全體의 問題서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百濟에 있어서는 彌勒下生信仰이 彌勒佛信仰이었기 때문에 社會의 으로 幅 넓게 流布되지 아니하였고 또 百濟사람들이 結集의 中核을 이루지도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에 對해서 新羅의 彌勒信仰은 半跏思惟像의 彌勒菩薩信仰이었다. 半跏像은 彌勒下生信仰에 對應하는 것인데 新羅에 있어서는 彌勒下生信仰이 花郎과 結付되어 彌勒과 花郎이 一體化되어 花郎의 榮枯盛衰가 半跏像信仰의 興亡盛衰와 그 軌를 같이 하였던 것이다. 半跏思惟像의 製作이 六世紀 後半에서 七世紀 後半까지,<sup>6)</sup> 그러니까 眞興王代에서 文武王朝까지의 約 一世紀半 사이에 急激히 높아지고, 그리고, 急速히 下降線을 긋고 있는 事實은 這般의 事情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上生信仰의 對象이 된 彌勒像은 交脚倚坐像이었다고 생각된다.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에 의하면 兜率天의 彌勒菩薩은 頭上에 天冠을 쓰고 七寶圓臺의 摩尼殿 師子床座 蓮華上에 結跏趺坐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新羅의 下生信仰의 對象이 되었던 彌勒像은 半跏思惟像이었다고 생각된다. 半跏思惟像은 元來思惟하고 苦惱하는 悉達太子像이었

6) 田村圓澄; 『古代朝鮮佛教と日本佛教』(1980), pp. 83~84參照.

다. 釋迦의 入滅後 56億萬年을 지나 兜率天에서 人間世界에 下生하는 彌勒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一生補處의 菩薩」即 第二의 釋迦이며 大略 釋迦와 같은 經路를 밟아 出家入山하여 修行한 쌍아 佛=覺者가 되는 것이다. 그런 故로, 彌勒이 世間衆生의 苦痛을 思惟 苦惱하는 姿態는 悉達太子의 苦惱하는 姿態 即 半跏思惟像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第二의 釋迦인 彌勒의 苦惱를 表現한 半跏思惟像은 半跏思惟의 太子像과 그 姿態에 있어서 같은 것이라 하겠다. 그런 故로, 나는 「兜率歌」 歌詞中の 彌勒座主는 兜率天의 彌勒을 뜻하는 語辭이고 「忽有一童子 儀形鮮潔 跪奉茶珠 從殿西小門而出」의 儀形이 鮮潔한 한 童子는 下生한 彌勒을 뜻하는 語詞로 생각한다. 그리고, 「茶珠在南壁畫慈氏像前」의 慈氏像은 半跏像의 彌勒菩薩을 뜻하는 語辭로 보아진다.

彌勒信仰中 上生信仰은 個人에 比重을 두고 있는 信仰이라 하겠다. 兜率天에의 上生을 願하는 것은 個人이며 彌勒의 來迎을 받는 것도 個人이다. 上生信仰을 같이하는 사람들에 의한 구름(group)의 形成은 생각할 수 있으나, 信仰 그 自體로 말하면 亦是 個人으로 還元된다 하겠다.

下生信仰은 그 主體가 彌勒이라 하겠다. 下生하는 彌勒을 待望하는 側에 있어서는 個人的 現當二世 即 個人的 現在와 未來를 祈願하는 個人段階의 信仰일 뿐만 아니라, 豐樂安穩하고 人民熾盛한 理想社會를 具現하려고 하는 國家段階의 願望이 重疊되어 社會的 國家的인 連帶를 갖게 된다. 따라서, 彌勒下生信仰은 國家佛敎로서의 性格을 띤 信仰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 「兜率歌」의 構造<sup>7)</sup>

前項의 「兜率歌」 說話의 核心은 「月明師 兜率歌」條의 靈異傳說 序頭에 자리잡고 있는 「兜率歌」即

「今日此矣散花唱良 巴齊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7) 琴基昌; 「非詞圖形 鄉歌에 對하여」 『語文學』 第41輯(1981), pp.10~11.

에서 發見할 수가 있겠다.

이 노래를 終結語尾를 中心으로 하여 歸納 整理하여 보면, 二 內語에 一個의 終結語尾가 內包되어 있는 것을 把握할 수가 있겠다. 卽 第四行末에 終結語尾가 實現되어 있다. 따라서, 「兜率歌」의 構造는 다음과 같이 把握할 수가 있는 것이다.

一句—— { 今日此矣散花唱良 巴寶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上記의 노래의 一句의 構造에 있어 그 構成을 보면, 文脈이 第二行末인 「花良汝隱」에서 中斷된다. 따라서, 第二行末尾에 句讀點(comma)이 內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改로, 이 노래는 雜文이며 二個의 構成的 要素, 卽 二名으로 成立되어 있다.

따라서, 「兜率歌」의 構造는 다음과 같다.

一句—— { 第一名……今日此矣散花唱良 巴寶白乎隱花良汝隱,  
 第二名……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위에 보인 바와 같이, 「兜率歌」는 「一句二名」으로 結構된 形式을 지닌 노래라 하겠다. 따라서, 「兜率歌」는 祭祀지낼 때의 祝文을 歌詞의 形式을 빌려서 지은 作品이라 하겠다.

### 3. 「兜率歌」의 解讀·解釋

이 「兜率歌」에 對하여는 진즉부터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解讀·解釋이 試圖되어 왔었다. 筆者는 다음에 本歌에 對한 몇 分의 解讀·解釋 結果를 紹介하고 簡單한 批判을 加한 다음 鄙見을 開陳하리 크기로 하겠다.

(1) 小倉進平<sup>8)</sup>

解讀

오늘 이에 散花(꽃)를 너  
 배푸숨은 꽃이여 너는

8) 小倉進平; 『鄉歌及び史蹟の研究』(1929), pp. 206~209.

고든 덕슴의 命을 바려  
彌勒座主 모셔러라.

解釋

오늘 이에 散花를 불러  
배꾸은 꽃이여 너는  
곧은 마음의 命을 심부름하여  
彌勒座主께 陪立할지어다.

(2) 梁柱東<sup>9)</sup>

解讀

오늘 이에 散花 불러  
선술본 고자 너는  
고든 덕수미 命스 브리올디  
彌勒座主 피셔와.

解釋

오늘 이에 「散花」를 불러 뿌리은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命을 부리옵기에, 彌勒座主를 모셔라!

(3) 池憲英<sup>10)</sup>

解讀

오늘 이에 스늬불어  
선술본 부리어 너는  
고든 덕수미 命스 부리오아  
彌勒座主(도리스님)모셔라.

解釋

오늘 이에 祝文을 불러 뿌리쳐 물리는 神아  
너는 이 誠意를 받드러 行하야, 하나님을 모실지어다.

(4) 金善琪<sup>11)</sup>

解讀

오날 여기

9) 梁柱東; 『古歌研究』(1975), p. 523.

10) 池憲英; 『鄉歌麗謠新釋』(1945), pp. 66~67.

11) 金善琪; 『두시나노래』 『現代文學』(1969)第172號, pp. 337~341.

산과 부라  
 풀살본 꽃이라  
 나난 곧안 마담이  
 명디 부리압기  
 미루자님 외시라라.

解釋

오늘 여긔 산화 불러 뿌리오신 꽃이라  
 너는 곧은 마오의 부림 반잡게 미루보살님 모시리라.

(5) 徐在克<sup>12)</sup>

解讀

오늘 이이 散花불라 텃보솔본 꽃자 년  
 고든 딘스리 命스 브리악  
 彌勒座主 외셔라.

解釋

오늘 에 散花(歌) 불러(포르르) 솟구치온 꽃아 년  
 곧은 마음의 命을 부러서  
 彌勒座主 외셔라.

(6) 金俊榮<sup>13)</sup>

解讀

오늘 이의 散花 불라  
 보보솔은 꽃아 너은  
 고든 딘슴의 命스 브리악  
 彌勒座主 외셔라.

解釋

오늘 이에 散花 불러  
 돌아 보내신 꽃아 너는  
 고든 마음에 命을 부리어(바들어)  
 彌勒座主를 모셔라.

(7) 金完頌<sup>14)</sup>

12) 徐在克：『新羅鄉歌의 語彙研究』(1974), pp. 36~37.

13) 金俊榮：『鄉歌文學』(1920), p. 145.

14) 金完頌：「兜率歌의 解讀에 대한 考察」『藏菴池憲英先生古稀紀念論叢』(1980), p. 56.  
『鄉歌解讀法研究』(1980), pp. 119~120

解讀

오늘 이에 散花 불려  
보보솔본 고자 너는,  
고든 탁수빅 命사 브리이악  
彌勒座主 모리서 벌라.

內容

오늘 이에 散花歌 불려  
찾아오르게 하온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命에 부리이어  
彌勒座主 되서 羅立하라.

위에 提示한 바와 같이, 「兜率歌」의 解讀이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試圖되어 왔다. 이들의 解讀中 「巴寶白乎隱」의 解讀은 金俊榮氏가 보인 解讀, 「보보솔본」을 最上의 成果였다고 評價한 金完鎭博士의 意見과 筆者는 그 軌를 같이 하려고 하는 바이다.

小倉進平博士의 「베푸」, 梁柱東博士의 「썩 또는 쏘」, 金善琪博士의 「똥」등의 解讀이 「巴寶」라는 表記에 제대로 들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音韻의 觀點에서 볼 때 難點이 큰 解讀으로 보아진다.

다음으로 우리는 「花良」의 「花」(꽃)의 理解問題가 있다. 「花」(꽃)은 「讚者婆郎歌」의 「花判也」(꽃가라여)에 있어서와 같이 神을 뜻하는 語詞로 보아진다. 그러나, 「花判」(꽃가라)는 神明을 意味하는 語辭인데 對해 「花」(꽃)은 神 또는 惡神을 뜻하는 語詞로 把握된다. 따라서, 「花良汝隱」의 「花」(꽃)은 日怪를 象徵的으로 表現한 것으로 생각된다.

「花良」의 「良」字를 「여」와 같이 感嘆呼格助詞로 읽을 것이냐 或은 「아」와 같이 卑稱 또는 雅稱 呼格助詞로 읽을 것이냐 하는 問題는 讀法上의 問題보다도 이 「良」字가 들어 있는 노래의 性格 問題에 關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兜率歌」는 祭祀 때 神에게 읽어 告하는 祝文을 歌詞의 形式으로 엮은 것이다 하겠다. 祝文에는 詩의인 要素가 多少 加味되어 있어서 祝文을 朗讀할 때 音調의 高低와 強弱을 音律的으로 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祭祀지는 것은 하나의 儀式이며 一種의 演劇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그런 改로, 祭祀지대는 過程에

있어서 神佛의 靈的인 感應이 最高潮에 達하는 때가 바로 이 祝文을 읽을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위와 같이 보아 오면, 「花良」의 「良」은 마땅히 感嘆呼格助詞「여」로 읽어야만 된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그런 改로, 筆者는 「花良」은 「꽃여」로 解讀하려고 한다.

이제 「兜率歌」의 다른 部分에 對한 解讀의 問題로 옮겨 가자. 「使以惡只」에 對한 解讀은 池憲英氏가 보인 解讀「부리오아」를 最上의 成果로 評價한다. 「惡只」의 「惡」字는 「오」로 解讀할 수도 있고 「악」으로도 解讀할 수 있겠다. 그 解讀上의 差異點은 亦是 讀法上의 問題보다도 이 「惡」字가 들어 있는 「노래」의 性格 問題와 關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徐在克·金俊榮·金完鎭 諸氏의 「악」, 小倉進平博士의 「바려」, 梁柱東博士의 「읍더」, 金善琪博士의 「암기」가 모두 「惡只」라는 表記에 제대로 들어 맞지 않거나 音韻의 觀點에서 볼 때 難點이 있다 하겠다. 그런 改로, 「惡只」는 池憲英氏의 解讀과 같이 「오아」로 읽어야 하며 「使以惡只」를 「부리오아」로 解讀할 때 비로소 玄妙하고도 魅力있는 文學的인 音樂을 演奏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 하겠다.

「使以」(부리)는 「行也·爲也」를 뜻한다. 따라서, 「使以惡只」는 「~을 行하야」를 意味한다.

끝으로 우리는 終句末尾에 붙어 있는 「陪立羅良」의 解讀·解釋에 또 하나의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陪立」은 「되셔」(모셔)로 解讀하는데 別 異議가 없는 것 같다. 「羅良」는 「羅」가 이미 終止詞「라」임에도 不拘하고 「羅良」(라여)로 感嘆形 命令詞「良」(여)字를 添記한 것은 祝文을 읽을 때 「良」(여)를 길게 咏嘆的으로 朗誦함으로써 「兜率歌」의 祝文으로서의 靈的 效果를 一層 高揚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兜率歌」는 祝文인 同時에 詩와 노래의 性格을 兼備한 作品이라 하겠다.

그런데, 梁柱東氏는 그의 著「古歌研究」에서<sup>15)</sup> “「羅」가 이미 「라」인데도 不拘하고 「良」字를 添記한 것이 問題이나, 「羅」(라)는 흔히

15) 梁柱東; 前掲件(1975), p. 539.

終止詞에 쓰여짐으로 表現上 心理의 不安이 있어 命令形에도 쓰이는 「良」字를 再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여 梁博士는 「良」字 添記의 理由를 表現上 心理의 不安에 求하고 있고, 金完鎭博士는 그의 論文 「兜率歌의 解讀에 대한 考察」에서 「羅良」을 「陪立」의 語尾로 보지 않고, 그와는 別個의 動詞로 다루고 있다. 卽 「모리서 벌라」와 같이 解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筆者는 梁柱東氏와 金完鎭氏의 見解에 同調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兜率歌」를 解讀하려고 한다.

오늘 이에 散花 불러  
보보살본 꽃어 너는  
고든 ㅁ스미 命ㅁ 부리오아  
彌勒座主 모서라어.

와 같이 解讀할 때 韻文이 지니는 莊重한 立體感과 同時에 餘韻이 嫻嫻히 周回에 울려 퍼지는 文學的인 音樂을 演奏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兜率歌」를 筆者의 意見에 따라 通解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 이에 散花歌 불러  
꽃을 뿌려 祭祀지내음은 惡神이여 너는  
나의 꿈은 마음의 命을 받들어 行하여서  
彌勒座主를 모실지어다.

### Ⅲ. 「祭亡妹歌」<sup>16)</sup>에 對하여

筆者는 앞에서 月明의 「兜率歌」에 對하여 論하였으므로 이곳에서는 다시 「祭亡妹歌」說話를 分析하고 「祭亡妹歌」의 構造를 考察한 다음, 「祭亡妹歌」의 解讀 解釋에 關한 諸家의 異見들을 問題解決에의 鍵잡이로 삼고 「祭亡妹歌」의 解讀과 解釋을 試圖해 보기로 한다.

#### 1. 「祭亡妹歌」說話의 分析

「祭亡妹歌」說話는 아래와 같이 分段될 것이다.

16) 崔南營; 『三國遺事』(1975), p. 223.

(1) 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鄉歌祭之.

(2) 忽有驚颺吹紙錢 飛舉向西而沒.

歌曰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盼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部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多乎丁  
阿也 彌陀刹良逢乎 吾道修良待是古如」

(3) 明常居四天王寺 善吹笛.

(4) 嘗月夜吹過門前大路 月馭爲之停輪.

(5) 因名其路曰月明里 師亦以是著名.

(6) 師即能俊大師之門人也.

(7) 羅人尙鄉歌者尙矣 蓋詩頌之類歟.

(8) 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

讚曰

「風送飛錢資逝妹 笛搖明月住姮娥  
莫言兜率連天遠 萬德花迎一曲歌」

「祭亡妹歌」說話는 (1), (3), (5), (6), (7)의 歷史的 事實과 (2), (4)의 靈異·神異的 傳說, (8)의 靈異·神異的 解義로 成立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卽 (1), (3), (5), (6), (7)이 歷史上的 人物인 月明과 新羅時代의 鄉歌歌人(詩人)들에 關聯된 歷史的 事實의 報告임에 對하여 (2), (4)는 靈異·神異的 事象을 들어 月明이 헤아릴 수 없는 靈異力神通力을 지녔던 人物이었음이 象徴的으로 說話되고 있다. (8)은 新羅 鄉歌作品에 對한 一然의 評價라 할 수 있겠다.

(1)은 「月明은 또 일찌기 죽은 누이 同生을 위해서 齋를 올렸는데 鄉歌를 지어 祭祀지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 改로, 이곳은 歷史上的 人物인 月明과 그의 누이 同生에 關聯된 歷史的 事實의 報告라 하겠다. (2)는 「突然히 狂風이 일어 紙錢을 날려 西쪽으로 向해 사라져 갔다」라고 하고 있다. 「無量壽經」에 의하면, 世尊이 阿難陀의 물음에 對해서 “法藏比丘는 이미 成佛하여 지금 西쪽에 있다. 그 이름을 阿彌陀佛이라 하는데 그것은 無量光佛或은 無量壽佛이란 뜻이다. 그 나

라는 여기에서 10萬億번째에 있고 그 부처(佛)가 있는 세계를 極樂이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念佛宗에 의하면 西方 極樂世界에 阿彌陀佛이 있는데 그 부처(佛)가 四十八願으로 念佛하는 衆生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보아 오면, 月明이 죽은 누이 同生을 위하여 齋를 올렸을 때 「突然히 狂風이 일어 紙錢을 날려 西쪽으로 向해 사라져 갔다」라고 함은 月明의 至極한 德과 精誠이 부처님에게 感動되어 누이 同生의 靈魂이 阿彌陀淨土로 引導되었음이 象徴적으로 說話되고 있다 하겠다. (3)은 「月明師는 恒常 四天王寺에 살고 있었으며 피리를 잘 불었다」라고 하고 있다. (4)는 「月明이 일찍이 달밤에 피리를 불면서 門 앞의 큰 길을 지나갔더니 달이 그 運行을 멈춘 적이 있었다」라고 하고 (5)는 「이로 因하여 그 길을 月明里라고 이름했다. 月明師 역시 이로써 著明해졌다」라고 하고 있다.

一然은 歷史上의 實在人物인 月明이라는 僧侶가 피리를 잘 불어 달의 運行을 멈추게 한 헤아릴 수 없는 靈異力 神通力의 所有者였다는 것을 月明里라고 하는 里名을 가지고 그 證據로 삼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4), (5)는 「月明里의 里名 由來記가 되겠다. (6)은 「月明師는 能俊大師의 門人이다」라고 하는 句節은 實在人物이었던 月明師의 傳記的 記錄인 것으로 捕捉된다. (7)은 「新羅 사람들 가운데 鄉歌를 崇尚한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高尚하였다. 大概 詩 頌의 類인 가부다」라고 하고 있다. 卽 「羅人尙鄉歌者尙矣」는 新羅時代의 鄉歌詩人들에 對한 一然의 人物評이고 「盡詩頌之類歟」는 鄉歌文學의 特徵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8)의 「改로 往往 能히 天地 鬼神을 感動시킨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함은 新羅 鄉歌文學作品에 對한 一然의 評價라고 할 수 있겠다. 卽 一然은 新羅의 鄉歌詩人들의 人物評과 鄉歌文學의 特徵을 말한 다음 이들 詩歌人들을 作家活動에 있어서 靈異力 神通力을 지녔던 人物들로서 解義하고 있다.

「三國遺事」에 收錄되어 있는 鄉歌資料는 그것이 鄉歌說話 또는 鄉歌傳說이라 할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 그런 故로, 鄉歌說話 속에 끼어 있는 鄉歌는 그 속에 담겨 있는 思想이 靈異傳說 神異說話의 中心 思想으로서 傳說 說話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月明師의 神異莫測한 活動과 靈異絕妙한 生活을 強調하는 具體的인 作品으로서 「兜率歌」와 「祭亡妹歌」가 提示되었다고도 把握할 수가 있겠다. 因하여 月明師에 關한 靈異傳說과 神異說話는 「兜率歌」와 「祭亡妹歌」를 補充 證示하기 위한 資料로서 「兜率歌」와 「祭亡妹歌」 說話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筆者는 위에서 言及해 내려온 所見의 根據를 좀더 確然히 하기 위하여 「祭亡妹歌」 歌話資料의 새로운 模索 檢討의 길을 進行시켜 나아가기로 하겠다.

佛敎의 信仰에는 自力信仰과 他力信仰의 두 가지가 있다 하겠다. 自力信仰이라 함은 禪宗 等に 있어서와 같이 우리의 마음(心)이 本來 淸淨하여 煩惱가 없고 無漏의 智慧가 具足하여 이 마음(心)이 곧 부처(佛)이므로 미음 밖에 부처가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의 根本을 追究하여 가서 더 이상 追究할 수 없는데까지 追究하여 가면, 畢竟 크게 깨달아 부처(佛)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他力信仰이라 함은 念佛宗 또는 淨土宗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西方 極樂世界에 阿彌陀佛이 있는데 阿彌陀佛 自身이 四十八願에 의하여 極樂淨土가 이루어졌고 부처가 되었으므로 娑婆世界의 衆生들도 누구든지 阿彌陀佛에 歸依하여 至極한 精誠으로 念佛하기만 하면, 그 부처의 誓願에 따라서 極樂淨土에 往生하여 阿彌陀佛의 法文을 듣고 無生法忍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보아 오면 「祭亡妹歌」 說話중에 보이는 「忽有驚颺吹紙錢 飛舉向西而沒」即「突然히 狂風이 일어 紙錢을 날려 西쪽을 向해 사라져 갔다」라고 하는 句節은 누이 同生의 靈魂이 阿彌陀淨土로 引導되었음을 象徴적으로 表現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 故로, 一然은 後者即 他力信仰의 立場에서 「祭亡妹歌」 說話를 叙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또 「祭亡妹歌」 歌詞中 「阿也 彌陀利良逢乎 吾道修良待是古如」라고 하는 句節로 보아 月明은 阿彌陀淨土가 西方에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作詞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따라서, 月明 또한 後者, 即 他人信仰의 立場에서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故로, 一然과 月明師의 阿彌陀佛과 阿彌陀淨土에 對한 見解는 同一한 것이며

他力信仰의 立場에서 月明은 「祭亡妹歌」를 지었고, 一然은 「祭亡妹歌」에 얽힌 說話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念佛宗에 있어서는 阿彌陀佛과 極樂淨土에 對한 見解에 따라서 다시 自力信仰과 他力信仰으로 나누어진다. 他力信仰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으니 여기서 再論하지 않겠다. 念佛宗의 阿彌陀佛과 極樂淨土에 對한 自力信仰의 見解에 의하면, 곧 唯心이 淨土요 自性이 彌陀라는 것이다. 이 立場에서는 極樂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인즉 내 마음이 곧 淨土요 阿彌陀佛로 마음 밖계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自性이 곧 阿彌陀佛이라고 믿고 念佛하는 것이라 하겠다.

自性이 곧 彌陀라는 것은 自己의 마음이 阿彌陀佛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心)이 本來 淸淨하여 生滅이 없으니 이것이 곧 無量壽 無量光이요 그 가운데 昭昭靈靈하여 아득하지 않으니 이것이 곧 覺이라는 것이다. 唯心이 곧 淨土라는 것은 極樂淨土가 西方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極樂世界가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自性은 本來 淸淨하여 罪와 福이 모두 空하고 苦惱가 아주 끊어졌으니, 곧 如如하여 變하지 않으니 이것이 곧 極樂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理致를 깨닫고 道를 닦으면, 죽은 뒤에 西方에 있는 極樂淨土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世上에 있는 동안에 成佛을 成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 2. 「祭亡妹歌」의 構造<sup>17)</sup>

前項에서 「祭亡妹歌」說話를 分析해 본 結果에 의하면, 이 說話의 核心은 「悼亡妹詞」即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盼伊造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遺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業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多乎了  
阿也 彌陀利良逢乎 吾道修良待是古如」

에 있다 하겠으므로 「月明師 兜率歌」條의 靈異傳說 後半部에서 發見

17) 琴基昌: 「嗟辭詞圖의 歷史의 變遷에 對하여」『語文學』第38號(1979), pp. 17~18.

하는 셈이라 하겠다.

이 노래를 各行末의 語尾를 中心으로 하여 文法的으로 分析하여 보면, 이 노래는 그 内部에 三個의 終結語尾를 가지고 있다. 即 第四·第八·第十行의 末尾에 終結語尾가 實現되어 있다. 따라서 「祭亡妹歌」를 終結語尾를 中心으로 다시 整理하여 보면, 三個의 構造的 單位로 되어 있다.

- 第一句—— {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盼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 第二句—— {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 第三句—— { 阿也 彌陁利良逢乎  
吾道修良待是古如.

上記의 노래의 三句의 構造에 있어서 第一句(初句)의 構成을 살펴 보면, 文脈이 「次盼伊遣」에서 中斷된다.

第二句의 構成은 「浮良落尸葉如」에서 文脈이 中斷되고, 第三句의 構成은 文脈이 「逢乎」에서 中斷된다. 따라서, 各句는 二個의 構成的 單位, 即 二名으로 成立되어 있다. 그런 故로, 「祭亡妹歌」의 三句六名의 構造는 다음과 같다.

- 第一句(初句)—— { 第一名…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盼伊遣,  
第二名…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 第二句(中句)—— { 第三名…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第四名…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 第三句(終句)—— { 第五名…阿也 彌陁利良逢乎,  
第六名…吾道修良待是古如.

以上の 構造를 두고 보면, 이 노래는 第二·第六·第九行의 末尾에 句讀點이, 第四·第八·第十行의 末尾에 終止符가 內包되어 있다. 以上の 結果를 두고 보면, 이 「祭亡妹歌」는 三句六名の 基準形式에 제대로 符合되는 完璧한 型態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嗟辭詞腦의 型態를 史的 立場에서 볼 때, 筆者는 「祭亡妹歌」로서 嗟辭詞腦는 型態의 完成된 것으로 보며 麗初의 均如歌에 이르러

서는 表記文字 等の 混亂이 나타나기 始作하여 嗟辭詞腦도 벌써 壯年期를 지나 硬化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3. 「祭亡妹歌」의 解讀·解釋

이 「祭亡妹歌」에 對하여도 일찍부터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解讀 解釋이 試圖되어 왔는데 論者마다 意見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定說을 세우지 못한 채 彷徨하고 있는 것이 學界의 實情이라 하겠다.

筆者는 이에 「祭亡妹歌」의 解讀 解釋에 關한 諸家の 異見들을 問題 解決의 鍵잡이로 삼고서 「祭亡妹歌」의 解讀 解釋에 對한 鄙見을 披瀝해 려보고 한다.

첫째로 筆者는 小倉進平博士의 解讀을 들 수 있겠다. 小倉博士는 그의 著書 「鄉歌及び吏讀の研究」에서<sup>18)</sup>

生死길은 이에 잇아매 저히고  
 나논 잔다(흙) 말사도 물으다 일으고 가닛고  
 어닉 가솔 일흔 벼롬에 이에 더에 락딜 녀(히)어  
 한무리논 가지에 나고 가는곧(을) 물으온명  
 阿也  
 彌陀刹에 맞나온 나(논)  
 道(물) 닷가 기다리고다

라고 解讀하고 있다. 小倉博士의 「祭亡妹歌」 解讀에는 많은 問題點이 있기는 하나 外國 사람으로서 「祭亡妹歌」를 이만큼이나 解讀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우리는 小倉進平博士의 方法과 業績을 받아들이고 다시 이 노래의 改讀을 試圖한 梁柱東博士의 解讀을 들 수가 있겠다. 梁柱東博士는 그의 著書 「古歌研究」에서<sup>19)</sup>

生死路는  
 에 이사매 저히고

18) 小倉進平; 『鄉歌及び吏讀の研究』(1929), pp. 209~210.

19) 梁柱東; 『古歌研究』(1975), p. 540.

나는 가늠다 말사도  
 묻다 닐고 가늠잇고  
 어느 가솔 이룬 녀락매  
 이에 저에 떠덜 님다이  
 향든 가재 나고  
 가는골 모드온더  
 아으 彌陁刹에 맛보올내  
 道 닷가 기드리고다

라고 解讀하고 있다. 梁柱東氏의 解讀은 小倉進平氏의 그것에 比하여 크게 改善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第二行의 「此矣有阿米次盼伊遣」와 第九行의 「阿也 彌陁刹良逢乎吾」第十行의 「道修良待是古如」等の 解讀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問題點을 남기고 있다 하겠다.

이에 對해서 池憲英氏는 그의 論文 「次盼伊遣에 對하여」에서 이러한 點 等を 捕捉하여 梁博士의 解讀을 批判한 다음 「祭亡妹歌」의 解讀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sup>20)</sup>

生死 길은  
 이에 이샤매 즈홀이고  
 나는 가늠다 말사도  
 묻닐고 가늠잇고  
 어느 가솔 이룬 녀락매  
 이에 저에 떠덜 님다이  
 향든 가재 나고  
 가는 터 물오더  
 아으  
 彌陁刹에 맛보올 나  
 길 닷가 기드리고다

池憲英氏의 解讀을 梁柱東氏의 解讀과 比較할 때 그다지 큰 差異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初句 第一行에서 「生死路는」과 「生死길은」. 第二行에서 「예」와 「이에」, 「저히고」와 「즈홀이고」 等を 볼 수 있으며 다

20) 池憲英 ; 「次盼伊遣에 對하여」『崔鉉培先生選甲記念論文集』(1971), p. 464.

음 第四行에서 「묻다닐고」와 「묻닐고」의 程度인 것이다. 또 中句 第八行에서 「가는곧」과 「가논터」, 「모드온더」와 「물오더」, 그리고 終句에서 「道닷가」와 「길닷가」 따위의 解讀의 差異를 보일 따름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여러 學者들에 의한 「祭亡妹歌」의 解讀을 批判한 다음 이 노래의 改讀을 試圖한 金完鎭教授의 解讀을 들 수가 있겠다.<sup>21)</sup>

生死 길혼  
 이에 이샤매 머뭇그리고,  
 나는 가나다 말스도  
 묻다 니르고 가논터고.  
 어느 구술 이룬 터르매  
 이에 너에 프러덜 님존,  
 향돈 가지라 나고  
 가는 곧 모드론더.  
 아야 彌陀刹아 맛보올 나  
 道 닷가 기드리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研究에서는 池憲英氏가 보인 「次盼伊遣」에 對한 解讀을 最上의 成果로 評價한다. 小倉進平博士의 解讀 「저히고」, 梁柱東博士의 解讀 「저히고」, 金完鎭教授의 改讀 「머뭇그리고」가 모두 「次盼伊遣」이라는 表記에 제대로 들어 맞지 않거나, 音韻의 觀點에서 볼 때 難點이 큰 解讀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想定한 語義들을 가지고는 佛敎的인 生死觀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祭亡妹歌」의 結句인 「阿也 彌陀刹良逢乎吾道修良待是古如」에 있어서 從來의 解讀者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것은 「逢乎吾」의 三字라 하겠다. 小倉進平博士의 「맞나온 나(느)」, 梁柱東博士의 「맛보올 내」, 池憲英氏의 「맛보올 나」, 金完鎭教授에 「맛보올 나」가 모두 「逢乎吾」라는 表記에 제대로 들어 맞지 않거나 音韻의 觀點에서 볼 때 難點이 있고 하겠다.

筆者는 「逢乎吾」의 「逢乎」를 轉成名詞로 보아 「맛보호」라고 읽고

21)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1980), p. 124

「呑」(나)는 「呑隱」에서 「隱」이 省略된 形態로 보려 한다. 그것은 初句 第二名에 「呑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라고 「呑隱」이 이미 나와 있어서 「呑隱道修良待是古如」라고 하면 「呑隱」(나)이 重複되는 故로 「呑隱」에서 「隱」을 省略하여 「呑」(나)라고 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阿也 彌陁利良逢乎呑道修良待是古如」를 「阿也 彌陁利良逢乎 呑道修良待是古如」即

「아으 彌陁리에 맞보호  
나 道닷가기 드리고다」

라고 解讀할 때 音韻의 觀點으로 보거나 意味論의으로 볼 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筆者는 「祭亡妹歌」의 解讀을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生死길은  
이에 이샤매 즘홀이고,  
나는 가느다 말스도  
모든 이르고 가느넛고.  
어느 가을 이룬 벵락매  
이에 너에 뿌러딜 님다이,  
향든 가게 나고  
가는 더 모돌오더.  
아으 彌陁리에 맞보호,  
나 道닷가 기드리고다.

와 같이 解讀할 때 韻文이 지니는 文學의 施律과 莊重典雅한 形態美가 玄妙한 調和를 이루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하겠다.

「祭亡妹歌」를 筆者의 意見에 따라 通解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고 죽는 道理는  
이승에 있으매 태어나고,  
나는 잡니다 말도  
이르지 못하고 그때는 갔던가.  
어느 가을 일찍 부는 바람에



即 月明의 「祭亡妹歌」의 作詞에 있어서 使用된 對句表現의 技法은 生과 死의 律調가 反復되고 있는 初句·中句(章)와 死와 生의 逆調로 按配되어 있는 終句(章) 間의 諧調的인 定型律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祭亡妹歌」(悼亡妹詞)는 하나의 詩인 것이다. 三句六名形式의 排列과 對句表現의 技法을 驅使한 定型詩의 代表作이라 하겠다.

月明이 幽明을 달리한 누이 同生을 追悼營齋하는 動機는 「生과 死」, 「此와 彼」 「我와 汝」의 對句表現의 神韻을 낳아 놓게 한 것인 것이니, 月明의 呼吸만이 지나는 個人樣式은 「祭亡妹歌」가 풍기는 陰影그것일 것이다. 그리고 「悼亡妹詞」는 詩이기 때문에 詞意 以上の 韻致를 지니는 것이다. 語詞 하나 하나가 지나는 音律의 高低와 強弱은 그 語義가 보이고 있는 陰影과 相應하여 하나의 世界像을 反映하는 것이라 하겠다.

#### IV. 結 論

이에 筆者는 위에서 敘述한 바를 다시 要約하여 整理해 보기로 한다.

1. 「兜率歌」說話는 (1), (6), (9)의 歷史的 事實과 (2), (7)의 靈異·神異的 事象 (3), (8)의 靈異의 解義 (4), (5)의 「兜率歌」發生 傳說로 構成되어 있다.
2. (1), (2), (3), (4), (5)는 月明이 헤아릴 수 없는 靈異力·神通力을 지녔던 歷史的 背景에다가 하나의 詩歌傳說을 添付한 部分이라 하겠다. (6)은 一然의 生存當時 「兜率歌」가 「散花歌」로 불리우고 있었으나 「兜率歌」와 「散花歌」는 같은 노래가 아니며 「散花歌」는 따로 있다고 一然是 證言하고 있다. (7)은 月明이 日怪를 사라지게 한 靈異的 事象을 들어 月明이 헤아릴 수 없는 靈異力·神通力을 지녔던 人物로 解義하고 있다. (8)은 一然是 景德王代를 豊樂安隱하고 人民熾盛한 理想社會로서 評價하고 景德王 治下의 新羅國土가 怨賊 兵火 飢饉 같은 災難이 없는 理想國家이 있음을 下生한 彌勒으로서 象徴的으로 說話하고 있다. (9)

는 實在人物인 月明의 傳記的 記錄인 것으로 把握된다.

3. 彌勒座主는 兜率天의 彌勒을 뜻하는 語詞로서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에 의하면 兜率天의 彌勒菩薩은 七寶圓臺의 摩尼殿 師子床座 蓮華上에 結跏趺坐하고 몸은 閻浮檀金色이며 머리 위에는 天冠을 쓰고 있다고 한다.
4. 彌勒信仰에서 彌勒이 있는 兜率天에 上生하는 것을 願하는 上生信仰과 兜率天에서 下生하여 오는 彌勒과 만나기를 願하는 下生信仰의 두 가지가 있다.  
上生信仰은 個人에 比重을 두고 있는 信仰이라 하겠다. 兜率天에의 上生을 願하는 것은 個人이며 彌勒의 來迎을 받는 것도 個人이다. 이에 對해서 下生信仰은 그 主體가 彌勒이라 하겠다. 下生하는 彌勒을 待望하는 側에 있어서는 豊樂安隱하고 人民熾盛한 理想社會를 具現하려고 하는 願望이 重疊되어 社會的 國家的인 連帶를 갖게 된다. 따라서, 彌勒下生信仰은 國家佛教로서의 性格을 띤 信仰이라 하겠다.
5. 下生信仰은 다시 龍華의 三會에 結緣을 願하는 彌勒佛信仰과 半跏思惟像을 對象으로 하는 彌勒菩薩信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前者는 龍華의 三會에서 만나는 일에 意義가 있는데 對해, 後者는 彌勒의 下生 그 自體에 意義가 있는 것이다.
6. 「兜率歌」의 構造는 一句二名으로 結構된 形式을 갖추고 있다.
7. 「兜率歌」를 解讀함에 있어서 「巴寶白乎隱」은 「보보솔본」 뜻을 뿌려 (祭祀지내움), 「花良」은 「꽃여」(惡神이여), 「使以惡只」는 「부리오야」(만드려 行하야), 「陪立羅良」은 「모셔라여」(모실 지어다)로 解讀 解釋한다.
8. 「祭亡妹歌」說話는 (1), (3), (5), (6), (7)의 歷史的 事實과 (2), (4)의 靈異·神異의 傳說, (8)의 靈異·神異의 解義로 成立되어 있다. 卽 (1), (3), (5), (6), (7)이 歷史上의 人物인 月明과 新羅時代의 鄉歌歌人들에 關聯된 歷史的 事實의 報告임에 對하여 (2), (4)는 靈異·神異의 事象을 들어 月明이 헤아릴 수 없는 靈異力 神通力을 지녔던 人物이었음이 象徵的으로 說話되고 있다. (8)은 新羅 鄉歌作品에 對한 一然의 評價라 할 수 있다.

9. 一然은 歷史上의 實在人物인 月明이라는 僧侶가 피리를 잘 불어 달의 運行을 멈추게 한 해야될 수 없는 靈異力 神通力의 所有者였다는 것을 月明里라는 里名을 가지고 그 證據로 삼으려고 하였다. 卽 (4), (5)는 月明里의 里名由來記가 되겠다.
10. 佛敎의 信仰에는 禪宗 等に 있어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本來 淸淨하여 煩惱가 없고 無漏의 智慧가 具足하여 이 마음이 곧 부처이며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없다고 하는 自力信仰과 念佛宗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西方 極樂世界에 阿彌陀佛이 있는데 누구든지 阿彌陀佛에 歸依하여 至極한 精誠으로 念佛하기만 하면 極樂淨土에 往生할 수 있다고 하는 他力信仰의 두 가지가 있다.
11. 一然은 他力信仰의 立場에서 「祭亡妹歌」에 얽힌 說話를 이야기하고 있고, 月明 또한 他力信仰의 立場에서 「悼亡妹歌」를 노래하고 있다.
12. 他力信仰에 履하는 念佛宗에 있어서는 阿彌陀佛과 極樂淨土에 對한 見解에 따라서 다시 自力信仰과 他力信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3. 「祭亡妹歌」의 型態을 史的 立場에서 볼 때 完成된 것으로 보며 麗初의 均如歌에 이르러서는 表記文字 等の 混亂이 나타나기 始作하여 嗟辭詞腦도 벌써 壯年期를 지나 硬化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14. 「祭亡妹歌」를 解讀함에 있어서 筆者는 「逢乎吾」의 「逢乎」를 轉成名詞로 보아 「맞보호」라고 解讀하고 「吾」는 「吾隱」(나논)에서 「隱」이 省略된 形態로 보았다. 따라서, 「阿也 彌陀刹良逢乎 吾道修良待是古如」 卽

「아으 彌陀刹에 맞보호  
나 道닷가 기드리고다」

와 같이 解讀할 때 音韻의 觀點으로 보거나 意味論적으로 볼 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15. 「祭亡妹歌」를 佛敎의인 生死觀의 立場에서 分析하여 보면, 生과 死가 다음과 같이 對應하고 있음을 把握할 수가 있겠다. 卽

初 句—— { 第一名……生  
                  { 第二名……死  
中 句—— { 第三名……生·死  
                  { 第四名……生·死  
終 句—— { 第五名……死  
                  { 第六名……生

따라서, 「祭亡妹歌」는 生과 死의 律調가 反復되고 있는 初句·中句(章)와 死와 生의 逆調로 按配되어 있는 終句(章) 間에 諸調的인 定型律을 보여 주고 있는 格調 높은 作品인 것이다.